

## 제3장 장 아메리의 자살찬양론 비판

이번 강의에서는 ‘자살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자. 자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로 보는 견해, 자기 판단에 따라 자살해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문필가 장 아메리(Jean Améry)는 『자살하기: 자유죽음론 *On Suicide: A Discourse on Voluntary Death*』(1976)에서 허무주의적이고 자전적인 색채가 짙은 시각으로 자살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아우슈비츠의 몇 안 되는 생존자였음에도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2년 뒤 자살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살이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므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자유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자살 대신 자유죽음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장 아메리는 자살을 휴머니즘과 존엄성 개념을 활용해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살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아메리가 주장하는 ‘자유죽음’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자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 2 자살을 통해 최고 형태의 인간적 자유가 실현된다.
- 3 자살은 인간에게 휴머니즘과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준다. 자살은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이며 부자유한 삶에서 인간을 지켜주는 유일한 실천방법이다.
- 4 자살하겠다는 결정은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병적인 상태의 경계선은 유동적임에도, 자살은 지배사회의 대변자들이라 할 수 있는 심리학자들과 정신과의사들의 자의적인 구분에 맡겨져 있다.
- 5 자살을 감행하는 순간에 모든 자살자는 그들이 살아온 이력과는 무관해진다.
- 6 자살자가 치료에 성공하여 삶이 살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살을 기도하기 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사회의 기대에 적응했고 삶의 논리에

몸을 맡긴 것이다.

7 자살을 통해 삶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독단이 폐기되었다. 죽음은 삶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8 자살은 절대적 개성, 즉 자기 자신에 속한다는 것의 표현이며 절대적 정체성의 표현일 수 있다.<sup>1)</sup>

장 아메리가 자신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견해는 자살자들의 유서에서 보이는 내용과 흡사한 점이 많아 더욱 문제가 된다. 그의 ‘자유죽음론’은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 의미 있는 철학적 성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자살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죽음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사고가 일관되고 있어 감성적인 논리에 쉽게 휩싸일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오도된 가치관을 심어줄 위험이 높다. 그의 자살론이 얼마나 왜곡되고 그릇된 개념인지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려 한다.

### 1 자살은 인간만의 고유 권한이다

자살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살이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자살한 뒤에 당사자에게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것도 인간만의 존엄성이라고 할 것인가? 인간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성, 만물의 영장, 과학의 발견 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다움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삶의 방식, 죽음의 방식에 있다고 본다. 외롭게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에 평생 동안 헌신했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게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바로 수녀가 택한 삶의 방식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순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담담하게 밝은 미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이다.

그에 비해 자살은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는커녕 인간다움을 일거에 폐기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이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현상이라며 추켜세울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임해 담담하게 밝은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숭고한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

1) 토마스 브로니쉬, 『자살』, 118-126쪽.

## 2 자살을 통해 최고 형태의 자유가 실현된다

자살이야말로 최고의 자유라는 말처럼 어처구니없는 궤변은 없다. 인생의 막다른 처지에 몰린 자살자들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연 자살을 통해 실현되는 최고 형태의 인간적 자유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자유가 있기는 할까? 이미 자살한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껏 자살을 감행했다가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단 한 마디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장 아메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위의 발언은 자유보다는 자포자기에서 나왔거나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3 자살은 비인간적 삶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유일한 행위다

이런 말 역시 자살자가 남긴 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리 단순한 곳이 아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며 부자유한 곳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수도 있다. 살다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일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살한다고 해서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이 비인간적이라고 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자살함으로써 모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자살이 모욕적인 삶을 지켜주는 커녕 오히려 자살 행위로 인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이 가중되는 것을 늘 볼 수 있지 않은가.

## 4 자살 결정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병적인 상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있다. 또한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도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나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해도 마음 속 풀지 못한 응어리는 여전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자살하겠다는 결심이 자동적으로 타당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판단으로 자살을 결정하고 감행한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혹시 자살자가 생전에 더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경솔하게 자살을 결정한 판단이 부자유한 것이었음을 크게 깨달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은 없는가.

## 5 자살하는 순간 자살자는 그의 과거와 무관해진다

자살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바람을 하면서 죽는지도 모르겠다. 고통스러운 현실, 잊고 싶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서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자살이니 말이다. 하지만 올바른 죽음의 방식에 대해 연구해 온 입장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어제의 삶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삶은 내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자살자는 자살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불행한 삶과 단절되기를 바라겠지만, 그의 존재는 그가 살아온 이력과 자살 행위로부터 무관해질 수 없다. 칼로 무를 자르듯 오늘의 삶과 내일의 죽음이 갈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살았던 삶, 자살 행위, 그리고 자살 이후의 삶, 이 세 가지는 결코 단절될 수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이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삶의 이력뿐 아니라 자살로 인해 야기되는 인과까지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6 자살 치료자는 이미 자유의사를 포기하고 사회적 기대에 몸을 맡긴 사람이다

사회의 기대나 삶의 논리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 사람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의지대로 개성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알맞은 삶의 방식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속적 기준은 좋은 직업, 물질적 재산, 명문 대학 졸업 등 너무 협소한 가치일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들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가치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속적 가치는 너무 표피적이어서 제한된 의미만을 지녔을 뿐이다. 이런 기준에 자기 삶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삶을 모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굳이 자살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살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 7 인간에게는 자살의 권리가 있으므로 삶만이 최고라는 독단은 폐기되었다

죽음이 삶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자살을 통해서만 삶과 죽음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독단이며 이런 독단이야말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한 주장이다. 자살 행위는 삶의 권리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자살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자살은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일거에 파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따름이다.

## **8 자살은 자신의 절대적 개성, 절대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자살을 통해서만 자기 존재의 절대적 개성, 절대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경우도 없을 것이다. 자기 존재가 자기에게 속한다는 것은 자살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상식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런데 굳이 자살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주장해야 하는가. 오히려 자살은 자기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므로, 자기 존재의 절대적 정체성을 폐기시키는 행동이다. 자기 자신의 절대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자살이 아니라 건강한 죽음이다. 건강한 삶과 건강하지 못한 삶이 있듯이 죽음에도 건강한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원하듯이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건강한 죽음을 원한다. 하지만 자살이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죽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건강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고 만다. 어떻게 자살을 정상적인 존재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가. 절망과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자살이니 말이다.